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수용*

- 미디어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정 자**

〈차 례〉

1. 미디어 교육의 현재
2.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 (1)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목표
 - (2) 미디어 교육의 내용
3. 국어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관계
4. 미디어 교육 사례 분석
 - (1) 미디어 교육의 실시
 - (2)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평가
5. 미디어 교육의 미래

1. 미디어 교육의 현재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미디어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구미의 여러 나라들은 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왔다.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인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매스 미디어와 언어 문화 교육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임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학교 교육으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교사에 의해 특별활동 시간이나 서클 활동 등을 이용한 비공식적 교육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의 중심은 제도 외 교육으로서 이루어져 왔다. 종교 단체나 시민운동 단체에서 언론 운동과 수용자 주권 활동의 일환으로서 텔레비전 모니터 교육이나 비판적 시청자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미디어교육은 그 동안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문교육이기보다는 언론수용자운동의 한 실천방법으로 전개되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 면에서도 교육이론에 입각한 미디어 교육이기보다는 언론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르거나 언론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수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잘못된 언론구조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의식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온혜정, 임태섭, 1998:70).

최근에 와서야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 내에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책화 방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최소영(1999)의 『독립교과로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이 정규 교육 정책화 방안 연구』(1998), 김양은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미디어교육의 제도화를 중심으로-』(1994) 등이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학교 교육이라는 큰 틀이 아니라 특정 교과와의 관련성에서 미디어 교육을 논의하거나 교과 내에서 미디어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경희의 『국어과에서의 매체교육 수용 방안에 관한 연구』(2001), 김태환(2000), 이정화(2000), 김대행(1998), 최영환(1998), 박인기(1999) 등의 연구는 국어교육의 틀 안에서 미디어교육을 받아들이거나 바라보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과 최근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을 포괄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제7차 교육과정에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 미디어 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2.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

(1)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목표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적 양상은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미디어에 대한 교육, 미디어를 통한 교육으로 나타난다.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은 미디어를 특정 교과와 교수-학습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다른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미디어를 통해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미디어교육의 핵심은 바로 미디어에 대한 교육 즉 미디어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양상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면서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미디어가 소통되는 양상을 통해서 미디어와 관련되거나 미디어가 전달하는 가치의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두 양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연구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전개되어 왔다. 1992년 미디어 리터러시 전미 지도자 협의회(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에서 학자들은 “리터러시는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과 “미디어 문식성이 있는 사람은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화에 동의했다(Aufderheide, 1997).

- (1) 미디어는 구성되거나 현실을 구성한다.
- (2) 미디어는 상업적 의미를 지닌다.
- (3) 미디어는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 (4) 미디어의 형식과 내용은 각각의 매체와 관련되며, 그 매체는 고유한 미학,

코드, 관습을 지니고 있다.

(5) 수용자는 미디어 안에서 그 의미를 교섭한다.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NCA)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기준을 다섯 가지 수립했는데, 이것은 K-12 교육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미디어 문식성이 있는 의사소통자는 (1)개인적 그리고 공적인 삶에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청중과 미디어 내용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3)미디어 내용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4)미디어의 상업적 본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5) 특정한 청중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Christ, 2002).

Schwarz(2001)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특정한 결과를 위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Media literacy is the ability of a citizen to access, analyze, [evaluate], and produce information for specific outcomes)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삶의 기본적 능력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읽기, 쓰기, 말하기, 컴퓨터 사용, 정보의 시각적 제시의 해독, 심지어는 음악적 제시의 해독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Christ & Potter(1998)는 미디어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수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media literacy)”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미디어 교육(media educ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

디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두 개념 다 사람들이 미디어를 잘 알게(media literate)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목적을 일차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것에 둔다. 미디어 교육이라 함은 수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미디어를 해독,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더 나아가 미디어를 제작 생산하고 미디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2) 미디어 교육의 내용

과거의 미디어 교육은 보호주의 경향이었으며, 미디어의 부정적인 문화적,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어린이들의 미디어와 관련한 복잡한 경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그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전의 보호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나타났다(Buckingham, 1998). “식별”과 “비판적 안목”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보호주의적 시각과 계몽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현재의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을 소극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수용자로 즉 미디어 의미 해석자와 창조자를 키우고자 한다.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또한 미디어와 관련된 경험을 즐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킹엄과 세프턴-그린(정현선, 2002:37~38 재인용)은 미디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교육은 미디어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문화적 과정에 대한 탐구’라는 보다 넓은 영역 속에 위치 지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텍스트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 미디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포되고 사용되는가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문화 교육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디어 교육의 내용에 대해 생각할 때 논란거리 중 하나가 미디어 제작에 대한 교육이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전략이나 과정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미디어 내용의 분석에 강조점을 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제작 능력을 강조하는 이론도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미 지도자 협의회에서 내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 및 여러 학자들의 개념 규정에는 분석만으로 그치지 않고 미디어로 의사소통할 있는 능력,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력,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즉 제작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미디어 제작 교육은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미디어 이해나 분석 교육 보다는 교육 여건상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나 미디어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각각의 미디어의 본질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규정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내용을 크게 지식, 수용과 제작, 태도, 문화 네 부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미디어 교육 내용을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 미디어 텍스트 읽기와 만들기, 미디어에 대한 태도, 미디어 경험과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 미디어에 대한 알
-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과 제작·평가 능력
- 미디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 미디어 문화를 즐기고 창조하는 능력

이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내용을 미디어 이론과 미디어 실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교육 내용의 체계를 정했다.

【표 1】 미디어 교육의 내용 체계

미디어 이론		미디어의 실제
미디어에 대한 지식	미디어의 목적 미디어의 기능 미디어의 특성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음반, 가요 인터넷
미디어의 수용과 제작	미디어 수용의 원리 미디어 제작의 원리	
미디어에 대한 태도	미디어에 대한 태도 미디어 수용과 제작의 태도	
미디어와 문화	미디어 경험 미디어와 문화 미디어와 언어 생활적 의의	

3. 국어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관계

국어교육에서 미디어교육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주로 “매체 언어”와 “매체의 의사소통 양상”의 측면에서 활발하다.¹⁾ 미디어는 인간의 의사소통 활동이며, 고유의 언어 사용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관련성을 찾고 미디어 교육을 국어교육에서 수용하고 있다. 즉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국어교육에서의 비판적 읽기와 상통한다는 것이다.

- 1) Meyrowitz는 미디어를 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우선 가장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관점은 미디어를 회로(conduit)로 보는 것으로, 주로 미디어에 담겨진 내용과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정치·경제·조직·이데올로기적 요인 등에 연구 관심을 둔다. 둘째, 미디어를 언어(language)로 보는 관점은 사람들의 지각·이해·감성적 및 행동적 반응을 유도하고 조작하는 미디어의 표현 양식과 제작 기법에 주목한다. 그리고 세 번째 미디어를 환경으로 보는 관점은 미디어의 내용이나 문법적 선택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 변인으로서 미디어에 관심을 둔다(김성벽, 2001).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미디어를 언어로 보는 관점에서이다.

또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국어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관련성을 찾기도 한다. 국어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언어 사용 능력과 미디어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배우는 구어와 문어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또한 인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며,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 출현한다는 것이다.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은 처음에는 인쇄 미디어와 관련하여 읽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영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다른 미디어가 나타나자 비주얼 리터러시로 확대된다.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리터러시란 용어도 사용되나 점차 모든 미디어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Potte, 1998:4). 즉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리터러시는 문자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어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선진 외국의 자국어 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교육 분야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도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조류를 받아들여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현대인의 언어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국민기본 공통 교육인 [국어]과목에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되는 교육 내용들을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국어과의 학습 내용 중 어떤 내용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선정한다거나 내용을 찾는다거나 글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미디어교육의 본질을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교육의 내용에 비교적 가깝다고 여겨지는 “가치 있는 작품이나 영상 자료 등을 선별하는 기준을 말한다(6학년)”나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전달 효과에 대해 토의한다(8학년)”의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본질을 파악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거나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컴퓨터로 편집한다”는 컴퓨터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다분히 도구적 수준에 머물러 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의가 반감되고 있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의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 생활>에서이다. 매체의 영향, 매체 자체의 소통 현상 이해, 매체의 텍스트 이해, 매체의 활용 등을 그 교육 내용으로 도입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민 기본 공통 과정인 <국어>서는 미디어 그 자체에 대한 교육 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디어라는 것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며, 미디어와 그것의 작용 양상, 작용 언어, 미디어 언어의 특성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국어 교육의 영역을 새롭게 설정한다면 국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미디어를 도입하는 것은 제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4. 미디어 교육의 사례

(1) 미디어 교육의 실시

2002년 4월 둘째 주에서 5월 첫째 주까지 미디어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매체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주 동안 4시간의 수업을 실시한 후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했다.²⁾

2) 이 연구는 네 집단의 비교 연구가 아니다. 사전설문과 사후설문을 통하여 네 집단에 각기 교육된 미디어 장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사후설문조사 때 각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미디어 교육의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중에서 텔레비전 뉴스와 드라마를 가지고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텔레비전 뉴스는 공익적, 정보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 장르이자 논픽션 장르이고, 드라마는 오락적 기능을 하는 대표적 장르이자 픽션 장르이기 때문에 이 두 장르를 선정했다.

신문에서는 보도 기사와 사설 및 칼럼을 교육했다. 보도 기사는 공익적, 정보적 기능을 담당하고 사설 및 칼럼은 설득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현장 연구 참여 선생님들에게 교육 계획안을 바탕으로 수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체계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4차시의 교수·학습 지도안³⁾을 짜도록 선생님께 요청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살피기 위해 미디어 교육 실시 학교를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교와 남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등으로 나누어 남중, 여중, 공고, 여고 네 학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의 상황도 정규 국어 시간, 재량 활동 시간, 자율 학습 시간으로 다양하게 전개했다.⁴⁾

송파구에 위치한 남자중학교인 B 중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용산구에 위치한 남자 고등학교인 O공고에서 드라마에 대한 교육을 정규 수업 시간인 국어 시간에 실시했다.

B중학교에서는 정규 국어 시간에 텔레비전 뉴스의 이해와 제작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2. 어떻게 읽을까〉 단원과 생활국어 교과서 〈2. 토론하여

과만 소개하겠다.

- 3) 4차시의 수업(1차시: 뉴스의 기본적 특성 이해, 2차시- 3차시 : 뉴스의 비판적 이해, 4차시 : 뉴스 제작)을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요청했으나, B중학교에서는 뉴스 만들기과 발표하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어 교과서의 단원과 관련지어 8차시의 수업계획을 짜고 수업을 실시했다.
- 4) 수업 후 실시한 심층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받은 미디어 교육의 만족도와 미디어 교육의 정규 과목화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생겼는데, 어떤 시간에 미디어 교육을 실시했느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마련하기>과 관련하여 8차시의 수업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수행평가를 실시했다. 1~2차시는 뉴스 이해하기, 3~6차시는 뉴스 제작 과정, 7~8차시는 뉴스 만들기/보고서 제출로 하여 뉴스 제작을 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제작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직접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 카메라로 뉴스를 제작하는 데 큰 흥미를 보였다.

○공고에서는 정규 국어 시간에 텔레비전 드라마의 이해와 제작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실시했던 B 중학교와는 달리 드라마 제작보다는 드라마 이해를 중심으로 하여 수업 계획을 짰다. 1차시에는 드라마의 본질과 특성 즉 드라마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교육하고 2~4차시에는 구체적인 드라마를 통하여 드라마를 비판적 읽도록 교육했다. 드라마 제작에 관한 교육으로는 2차시에 드라마 대본을 써 보는 수준에 그쳤다.⁵⁾

종로구에 위치한 S여중과 서초구에 위치한 S여고에서 각각 신문 뉴스와 신문 사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정식 국어 시간이 아니라 S여중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에, S여고에서는 소위 0교시라고 하는 수업 시작 전 자율학습시간에 실시했다.

S여중에서는 1차시에 '신문 보도 및 신문보도 기사에 대한 이해', 2차시에 '신문 보도 기사의 비판적 읽기(1)', 3차시에 '신문 보도 기사의 비판적 읽기(2), 비판적으로 읽고 주장하는 글 쓰기' 4차시에 '신문 보도 기사 스토리보드 제작 및 평가'를 교육 내용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S여고에서는 1차시에 '신문과 사설, 칼럼에 대한 이해', 2차시에 '사설과 칼럼 비판적 읽기', 3차시에 '사설과 칼럼의 비판적 읽기', 4차시에 '사설과 칼럼에 대한 평론'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5) 이것은 방송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 때문이다. 드라마를 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시간적 여건이 학교 현장에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의 한 꼭지는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으나 드라마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장르의 성격에 따라 제작교육이 간단히 시뮬레이션나 콘티 작성에 그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직접 제작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평가

가. 사후 설문 조사 결과 분석⁶⁾

미디어교육을 마친 후에 각 집단의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은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도움정도, 효과정도, 향후 교육 참석의도, 향후 교육 방식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이다.

가) 미디어교육의 도움 정도

실시한 미디어교육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1-'상당히 도움됨'; 5-'전혀 도움 안됨')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집단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2】 미디어교육의 도움 정도(단위: %, N=166)

구분 평가	상당히 도움됨	약간 도움됨	그저그렇 습니다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평균(표준편차)
여중생	6.3	36.5	41.3	6.3	9.5	2.76(1.01)
남중생	6.0	50.0	32.0	2.0	10.0	2.60(1.01)
여고생	13.8	55.2	17.2	6.9	6.9	2.38(1.05)
남고생	8.3	45.8	37.5	-	8.3	2.54(0.98)
전 체	7.8	45.2	33.7	4.2	9.0	2.61(1.01)

나) 미디어교육 방식의 효과정도

미디어교육 방식이 효과적이었느냐는 질문(1-'상당히 효과적'; 5-'전혀 효과적이지 않음')에 대해서도 역시 모든 집단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표 2】의 오른쪽의 평균

6) 집단의 결과를 같이 제시했지만, 어느 집단이 더 효과적이라고 비교하려는 연구는 아니다. 교육 상황도 다르고 교육된 미디어 장르도 다르고 학생 변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선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참조).

【표 3】 미디어교육의 효과 정도 (단위: %, N=166)

구분 평가	상당히 효과적	약간 효과적	그저그림	약간 비효과적	상당히 비효과적	평균(표준편차)
여중생	4.8	38.1	46.0	4.8	6.3	2.70(0.89)
남중생	6.0	50.0	32.0	4.0	8.0	2.58(0.97)
여고생	3.4	62.1	20.7	6.9	6.9	2.52(0.95)
남고생	8.3	50.0	33.3	-	8.3	2.50(0.98)
전 체	5.4	47.6	35.5	4.2	7.2	2.60(0.93)

다) 향후 미디어교육 참석 의도

'기회가 된다면 미디어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상당수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40%의 학생이 참석의사가 있는 것으로, 16.4%가 참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4】 향후 미디어교육의 참석 의도(단위: %, N=165)

구분 의도	있다	없다	모르겠다
여중생	35.5	17.7	46.8
남중생	42.0	16.0	42.0
여고생	48.3	10.3	41.4
남고생	37.5	20.8	41.7
전 체	40.0	16.4	43.6

나.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

사후 설문 결과 분석만으로는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의 대한 반응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미디어 교육 수업을 받은 반 학생

들 몇 명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심층 인터뷰를 받고자 지원한 학생⁷⁾들을 대상으로 하여 2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먼저 간단한 기초조사⁸⁾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학생들과 면담자와의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한 후 본격적으로 미디어 교육에 대한 반구조화(半構造化)된 인터뷰⁹⁾를 실시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매체 이용 실태와 부모님이 반응을 묻고 나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받은 미디어 교육 수업의 내용과 효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

텔레비전 뉴스

대상 : 〈B중〉 학생 6명

일시 : 2002년 5월 15일 11시 30 - 1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뉴스 프로그램 이용 실태 ◆

이 학생들은 학생 3을 빼고는 하루 평균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비해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는 시간은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다. 즐겨보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좋아하는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도 종합 뉴스 프로그램이 아닌 스포츠 뉴스를 주로 시청한다고 대답했다. 친구들과 뉴스 보고 나누는 주제도 스포츠 뉴스였다.

-
- 7) 대상 학생들의 선정은 미디어 교육 수업을 한 교사에게 부탁했다. 심층 인터뷰의 의도를 설명하고 나서 인터뷰를 받고자 지원하는 학생들을 5명 정도 뽑아 달라고 했다. 그래서 B중학교에서는 6명의 학생들이, O공고에서는 3명의 학생들이 선정되어 심층인터뷰를 받았다.
- 8) 먼저 간단히 신상 소개를 하도록 하고, 미디어 이용 실태와 부모들의 반응, 미디어 텍스트의 선호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 9) 반구조화된 인터뷰란 사전에 면접에 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되 면접 장면에서 면접자가 융통성 있는 면접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즉, 계획면에서는 구조화된 인터뷰이나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인터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진행에 있어서 사전계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융통성에 있어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보다 훨씬 덜하다. 이 방법은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의 장·단점을 절충한 것으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종서, 1991:82).

◆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 ◆

기초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학생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 별 반응이 없었으며, 뉴스를 보고 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학생은 6명 중 3명이었다. 제2세부과제인 『신문의 언어 문화 연구』에서 신문 뉴스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 4명과의 심층인터뷰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반응이었다. 그 학생들은 맛벌이를 하시는 학생 1명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집에서도 부모들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 신문 읽기를 권장하는 분위기였으며 신문의 특정 기사를 지정하여 읽기를 권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문을 읽고 나서 부모님과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텔레비전 뉴스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 미디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 ◆

학생들은 모두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했다. 미디어에 대해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별로 협동하여 직접 뉴스를 만들어 보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다. 수업의 만족도를 점수화해보라고 하자 6명 모두 80점에서 100점 사이의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것은 『신문의 언어 문화 연구』에서 신문 뉴스와 사설을 공부한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였다. 신문보다는 텔레비전이 학생들에게 훨씬 더 친숙한 미디어라는 점이 수업 만족도에서 이런 차이가 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신문 뉴스나 사설의 수업은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재량활동이나 자율 학습 시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규 수업 이외의 또 다른 수업과 과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미디어 수업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에서 미디어 텍스트의 제작 교육도 내용과 방법만 잘 구안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미디어 수업의 내용과 방법 ◆

비중학교 TV뉴스 수업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8차시로 진행해서 4차시로 진행한 학교보다 시간의 여유가 더 있었다. 그래서 제작과 발표,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조별 토론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데 대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재량활동 시간에 수업을 한 여중생들은 수업 시간 중 토론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토론 시간도 너무 짧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깊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면서 수업의 결과로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여중생과 여고생들과의 인터뷰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여중생과 여고생들은 수업 방법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수업을 받은 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

◆ 미디어교육에서 더 배우고 싶은 것 ◆

○ 공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도 미디어 텍스트 제작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수업 진행에 있어 불만사항도 기술적인 환경에 대한 것이었다.

◆ 미디어 교과목 신설에 대한 반응 ◆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과목 신설에 대해 이 학생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이 기존의 교과목은 지식 위주이고, 미디어 교육은 활동 중심의 과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기존의 과목의 지식이나 기능도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데, 학생들은 교과서 방식이란 활동이 없고 설명이란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오해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받아 온 학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이것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10)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여중생들은 학습 부담량 때문에 새로운 교과목 신설에 반대했다. 사후 설문지의 분석 결과에서도 특별활동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지는 비율이 남중생보다 훨씬 더 높았다.

면담자 : 여러분이 느낀 점 자유롭게 얘기해봐요.

학생 6 :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재미있었어요.

학생 5 : 재미있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4 : 교과서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이 좋은 거 같아요.

면담자 : 교과서 방식이란 어떤 거지요?

학생 4 : 책 읽고, 의견(?) 물어보고, 활동은 없고

학생 3 :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대화한 게 좋았어요.

학생 2 : 교과서 방식보다 이런 방식이 좋았어요.

면담자 : 지금 생활국어에서 활동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학생 6 : 활동도 안 해요.

학생 1 : 무조건 숙제해와라 이런 식이에요.

면담자 : 말하기 하면, 말하기 안 하고 그냥..

학생 1, 4 : 발표만 하고 그냥.... 끝나고

면담자 :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별로 모여서 조사도 해보고
이런 게 좋다?

학생 1, 2, 3, 4, 5, 6 : 예

드라마

대상 : <O공고> 학생 3명

일시 : 2002년 5월 21일 4시 30분 - 6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 ◆

이 학생들은 집에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 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 ◆

텔레비전을 보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부모님과도 드라마를 본 후 별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신문 이용과 관련한 여중생, 여고생들의 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미디어에 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년 시기에 남자 학생보다는 여자 학생들이 부모들과 대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이유를 추론해 보자면, 학생들과 부모들 모두 신문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텔레비전은 오락적 성격이 강해 그렇지 않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교육의 효과◆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전에는 드라마를 별 생각 없이 보거나 재미 위주로 보았는데 드라마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판단력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설명 위주의 수업보다는 스스로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 좋았다고 말했다. 교과서의 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드라마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이 좋았다고 했다.

◆미디어 교육에서 더 배우고 것◆

텔레비전 뉴스 교육을 받은 중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의외로 제작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미디어 텍스트를 '읽는' 교육은 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왔지만, 미디어 텍스트를 '쓰는' 미디어 제작 교육은 아직까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 과정을 설계하면서 미디어 텍스트 제작에 관한 부분은 교육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가 논란거리였다. 그것은 카메라 사용법이라든지 편집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국어교육의 교육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가, 또 그런 제작 부분을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미디어 텍스트 이해 이상으로 제작 부분에 관심을 보였고, 미디어 교육에서 더 배우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제작' 교육 부분에서 찾았다. 그러나 신문 쪽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는데, 이것은 신문의 인쇄 매체적인 성격때문인 듯 추론된다. 텔레비전은 영상 미디어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는 면이 더 많았다.

◆ 수업에 대한 만족도 ◆

학생들은 드라마 수업에 대체로 만족했으며 좋은 평가를 내렸다.

면담자 : 수업 들은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몇 점?

학생 1 : 만점요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 다 얘기했잖아요

면담자 :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지

학생 1 : 그런 거 같아요, 저는요

학생 2 : 75점

학생 3 : 저는 90점

◆ 미디어 교과목 신설에 대한 의견 ◆

이 학생들은 미디어 교육을 특별활동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과목으로 취급하여 배우고 싶다고 했다.

◆ 미디어 교육에 대한 총평◆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지식 중심이나 설명 위주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즉 드라마와 토론에 대한 선호의 결과였다.

신문뉴스 교육

대상 : 〈서울사대 부속여중〉 학생 4명¹¹⁾

일시 : 2002년 5월 13일 4시 - 6시

장소 : 여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신문에 대한 관심도 ◆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성적이 학업 성적이 중상 이상이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신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집에

11) 5명의 학생을 선정했으나 1명의 학생은 일이 있어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

서도 신문을 하나 이상 구독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재량활동]시간에 신문을 읽던 학생이었다. 이들 학생의 반의 경우 학생의 수가 33명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문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 학생들의 신문 매체 이용 ◆

기초질문지에 대한 답에서도 보았듯이 이 학생들이 즐겨 읽는 기사 내용(면)은 정치나 경제면보다는 연예면이나 사회면 칼럼 등이었다.

◆ 신문 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의 반응 ◆

맞벌이를 하시는 학생 1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집에서도 부모들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 신문 읽기를 권장하는 분위기였으며 신문의 특정 기사를 지정하여 읽기를 권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문을 읽고 나서 부모님과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텔레비전 뉴스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 다른 미디어 이용 실태 ◆

그러나 이 학생들도 다른 미디어 이용 실태와 신문 이용 실태를 비교하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문을 읽는 것은 드물었고 메신저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 학교 교육에서의 미디어 교육 실태 ◆

이전에 신문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의 신문활용교육(NIE)을 언급했다. 그러나 신문이란 미디어 그 자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12) 이에 비해 인터뷰를 한 사여고 학생 5명은 텔레비전도 별로 보지 않고 컴퓨터를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학업량이 많고 대학 입시라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미디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 ◆

학생 1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디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다. 제 1세부과제에서 텔레비전 뉴스와 드라마로 미디어 교육을 받은 B 중학교 학생들과 O공고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만족도를 보인 데 비해 교육방법에 대한 점수와 효과성에 대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매겼다.

면답자 : 교육 받으면서 점수를 매긴다면 백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겠어요?
교육방법을 보면 얼마 정도 주겠습니까?

학생 4 : 전 한 60점

학생 3 : 저도 60점

학생 2 : 60점

학생 1 : 70점

면답자 : 그 다음엔 교육 내용에 대해선데. 자기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얼마나 많이 배웠나?

학생 4 : 40점

학생 3 : 30점

학생 2 : 40점

학생 1 : 전 90점

면답자 : 왜? 친구들은 다 30~40점이라는데

학생 1 : 저는 신문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눈에 띄는 것을 읽는데요,
그렇게 읽다보면 언젠가는 신문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꼼꼼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주식 같은 것도 선생님이 가상으로 해보라고 했어요. 한번 해 볼려고요.

면답자 : 30점이라고 한 친구,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

학생 3 : 제가 평소에 하던 것, 그냥 읽던 것 하는 것이니까, 국어시간 토론 시간에 할때도 비슷한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도 충분하고

면답자 : 여긴 다 뛰어난 학생들만 있는 것 같고, 일반 학생들의 평가는 어떨어요? 대충 기억나는 걸로

학생 1, 2, 3, 4 : 관심없었어요.

또 조별 활동으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생들은 B 중학교 학생

들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B 중학교 학생들과 O 공고 학생들은 미디어 수업에서 토론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새롭게 여겼으나 이들은 토론은 가볍게 수다 떠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차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미디어 교육을 어떤 수업 시간에 했는가, 수업 진행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가를 하나의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또 이들이 이전에 어떤 수업을 받아왔는지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설명 위주의 수업을 받아오다가 흥미있는 주제로 학생들 중심의 토론 수업을 한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을 것이다.

◆ 미디어 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 ◆

학생들은 신문의 유용성은 다 알고 있지만 신문이란 미디어 자체가 흥미 있고 쉬운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방식을 좀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수업 진행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점을 지적해서, 제 1 세부과제에서 8차 시로 진행한 B 중학교와 상당히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B 중학교나 O 공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제작 교육에 더 흥미를 보였지만, 다른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기존 과목에서 과중한 학습과 과제 때문에 힘들며, 신문이란 미디어 자체가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미디어 교과 신설에 대한 반응 ◆

제작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듯이 이 학생들은 미디어 교과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또 새로이 교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과와 일부로서 생기는 것도 긍정적 반응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디어 교육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학습이나 과제 부담량도 많은데 새로운 과목이 생긴다면 과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또 신문으로 미디어 수업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문이 학생들에게는 컴퓨터나 텔레비전보다 관심이나 흥미가 떨어지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신문 사설 교육

대상 : 〈사여고〉 학생 5명

일시 : 2002년 5월 15일 10시 - 12시

장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사여고에서는 2학년들에게 아침 자율 학습 시간에 소위 0교시 시간에 신문 읽기를 장려하고 있었다. 또 미디어 교육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반에서는 원래 담임 선생님이 신문의 여러 기사 중에서도 사설 읽기를 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층 인터뷰의 내용을 해석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학생들은 성적이 중상위권이면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었다.

◆ 미디어 이용 실태 ◆

이 학생들은 컴퓨터나 텔레비전보다는 신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중학교 때에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많이 이용했지만 고등학교에 와서는 미디어 이용 양상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신문 읽기를 권장하기도 하지만, 학교 수업이나 대학 입시 준비에 신문이 유용한 자료라서 신문을 많이 읽는다고 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문 읽기를 권장하기는 하지만 신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님의 반응 ◆

이 학생들의 부모는 신문 읽기를 권장했고 또 학생들은 신문을 읽고 나서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했다. 또 한 학생은 구독 신문 선택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신문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

이 학생들은 집에서 하나 이상의 신문을 정기 구독하고 있었고 신문 마다의 특징도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신문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또

사설과 칼럼, 정치면과 사회면 기사를 즐겨 읽고 있었다. 미디어 교육을 받은 다른 세 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세 집단은 신문을 거의 안 읽거나, 읽어도 거의 다 공통적으로 스포츠면이나 연예면에 관심이 많았다. 이 학생들에게 같은 반 학생들이 신문에 대해 관심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냐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할지는 의문이지만 반 학생의 30% 정도만이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미디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

이 학생들은 수업의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수업 방법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텔레비전으로 미디어 교육을 받은 두 집단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이었다. 교육시간이 정규 수업시간이 아니라 자율 학습 시간에 한 것이 이러한 차이의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다. 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교육내용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면담자 : 교육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 아니예요? 방법과 내용을 분리했을 때 점수를 매긴다면

학생 1 : 내용은 50점, 방법은 55점

학생 2 : 내용 60 방법 50.

학생 3 : 내용 65점, 방법 50.

학생 4 : 내용은 좋아서 70, 방법은 참여율이 낮아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40점

학생 5 : 내용 55 방법 55.

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교육내용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디어 교육의 효과◆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은 미디어 교육을 낮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배운 점은 많다고 했다. 이것은 텔레비전으로 미디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는 어느 정도 반대되는 점이다. 특히 B 중학교 학생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수업에 대한 평가는 높았는데, 수업을 받고 나서 새롭게 배운 것이나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 그런데 S 여고생들은 수업에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배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미디어 교과 신설에 대한 반응◆

이 학생들 역시 신문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새로운 교과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이것은 미디어 교육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이 제안한 것은 미디어 교과목도 교양과목인 [생활경제] 과목처럼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이 된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후 설문지의 결과에서 가장 선호도를 보인 것은 '선택과목의 일부'로 배우는 것이었다. 현재 일반 선택과목인 '국어 생활' 과목에서 매체 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이 일부 들어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5. 미디어 교육의 미래

안정임은 미디어 교육의 발전 단계를 의식화 단계, 조직적 확산 단계, 전문적 세분화 단계로 나누고,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은 조직적 확산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의식화 단계는 미디어 교육의 의미, 필요성, 당위성 등을 일반시민에게 알리고 각 단체별, 사회기구별로 여러 가지 관련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단계이고, 조직적 확산단계는 사회내의 각 조직과 기구별로 미디어 교육이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이다. 미디어 교육의 활동영역인 학교, 시민단체, 가정 단위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

지고, 인적, 물적 자원의 보충과 연대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짜임새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전문적 세분화 단계는 각 기구별, 단체별로 완전한 세분화가 이루어져 독자적으로 독특한 미디어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과정이다. 학교, 시민 운동 단체, 대학 등 각 사회기구별로 세분화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지금껏 이루어진 종교단체나 시민운동단체가 주동이 된 미디어 교육은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나 영향력 등을 생각해 볼 때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서, 최근에는 미디어 교육의 정규교과목화나 독립교과로서 신설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식적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미디어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교사에 의해 특별활동 시간이나 써클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를 수용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교과로 수용하는 방식
- 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수용하는 방식

현행 7차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보자면 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수용하는 방식은 재량활동으로 하는 방식과 특별활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다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을 교과로 수용하는 방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을 담당할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할 것인가, 기존의 교과목의 일부로서 미디어 교육을 할 것인가이다. 이것은 또 각각 국민 공통 기본 과정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게 할 것인가, 선택과목으로서 미디어 교육을 선택한 학생들만이 배우게 하느냐로 나눌 수 있다.

【표 5】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 수용 방안

교과방식	교과 신설 (독립 교과목)	①국민기본공통교과목
		②선택과목(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기존교과 기존 과목의 일부	③국민기본공통과목의 일부
		④선택과목의 일부
교과 이외 방식	⑤재량활동	
	⑥특별활동	

이 중에서 ③과 ④의 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을 수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국어 과목에서 일부, 국어 생활 과목에서 일부의 교육 내용으로, 그리고 독서 과목에서 제한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교육에서 정규 과목으로 신설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행하는 방법은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디어 활용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나 미디어 활용교육이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를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 또는 조만간에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교사 양성 기관과 교사 수급의 문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의 문제, 기존 교과목과의 조정 문제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제한적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교사에게 전적으로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공통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 방법은 정식 교과목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량은 줄여 줄 수 있지만 질과 내용이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기존 교과에 포함시켜 미디어를 교육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중심 담당 교과

는 국어과가 적당하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려면 기존의 국어과 교육 과정의 영역과 교육 내용을 조정하거나 틀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수용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 내용들은 미디어 교육의 일부분일 뿐이다. 즉 미디어 텍스트를 언어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따로 미디어와 관련되는 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영역 구분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가 힘들다. 이경화(2000)에서는 매체언어가 읽기 이해 과정과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읽기와 보기'라는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제시한 각급 학교별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각 매체의 중심 교육 내용을 보면 쓰기 즉 제작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미디어 역시 국어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내용과 국어과에서 담당해야만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리터러시와 텍스트의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할지라도 국어교육이 미디어 교육의 모든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 교과와의 협동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하지만 기존의 여러 교과에서 미디어 교육을 일부분을 담당하게 될 경우 역시 미디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작 미디어 교육을 받는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이 바뀌는 것은 교육 이론과 해당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요구,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미디어가 현대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것이므로 미디어 교육의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구성된 연구들이 많다. 교육의 현상에서 하나의 축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이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지적 수준과 학생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정 환경, 학교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미디어 교육을 어느 정도의 깊이와 넓이로 진행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앞의 연구는 단지 몇 개의 사례일 뿐이지만, 그 학생들의 가정 환경과 학교에서 다른 수업과의 관계라든지, 미디어 자체의 흥미도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생각과 반응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국어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용할 때, 그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성장 단계별 수준에 따라 달리 설정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이해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 미디어 생산과 수용 교육으로 나눈다면, 초등과 중등 저학년 수준에서는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등 고학년과 고등 수준에서는 미디어의 비판적 수용과 제작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모든 미디어를 각 학년에서 모두 다 교육하느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교육 수준의 차이를 두고 다 교육할 수도 있지만 우선 흥미로운 미디어부터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이 거의 선호하는 미디어도 있고 또 선호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미디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 내용을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같은 심화선택 과목을 설정했듯이, 미디어 교육도 국어과 계열의 심화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 구경희(2000), 「국어과에서 매체교육 수용 방안에 관한 연구-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음미(1994), 「미디어 읽기 능력(media literacy)을 위한 텍스트 접근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호, 「미디어 교육 제도화 방안」,
『2002년 교육·학술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 디지털 시대

-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 한국언론학회.
-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1998), 「매체언어교육론서설」, 『국어교육』 9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김동환 · 이도영 · 염은열 · 서유경(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 매체언어의 소통원리와 교육적 대상화의 방법」,
연구보고서 2000-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성벽(2001), 「환경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연구」,
『언론연구소 정기세미나 자료집』, 중앙대 언론연구소.
- 김양은(1994),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미디어 교육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은(2000), 「매체 발달에 따른 리터러시 개념의 변화 - 미디어교육의 확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언론연구』 10집,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 김태환(2000), 「국어과 텔레비전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택환 외(2000), 「세계 미디어 교육 모델」, 『언론재단총서』 25,
한국언론재단.
- 박인기 외(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테스트』, 삼지원
- 스가야 아카코(안해룡 · 안미라 역)(2001),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영숙(1997), 「교차-교육 과정으로서 미디어 교육과 독서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임 · 전경란(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 안정임(1998), 『미디어 교육의 한국형 모델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2002), 「디지털 시대 미디어 교육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
『2002년 교육·학술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 디지털 시대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 한국언론학회.
- 윤여탁(2001), 「광고 언어를 활용한 국어과 교재 개발 연구」,
『2000년도 교과교육공동연구 연구보고서』.

- 은혜정·임태섭(1998),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의 정규교육 정책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98-05, 한국방송개발원.
- 은혜정(2002),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미디어 교육 내용과 교육과정」, 『2002년 교육·학술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 디지털 시대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 한국언론학회.
- 이경화(2000), 「학교 교육으로 매체언어를 실행하는 방안」, 『한국어문교육』 9권 1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이종철(1998), 「대중 매체의 언어 메시지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8집, 국어교육학회.
- 전석호 역(2001), 『미디어 소사이어티』, 사계절.
- 정준영(2002), 『텔레비전 보기-시청에서 비평으로』, 책세상.
- 정현선(2002), 「문화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제언」, 『제19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 최병우·이채연·최지현(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매체언어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0-6, 국어교육연구소.
- 최소영(1999), 「독립과과로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환(1998), 「매체 변화에 대응하는 국어교육」,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창섭(1998),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경향 고찰」, 『98년 현장 사례 및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언론학회.
- 한정선(2000),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해석과 접근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 『교육공학연구』 제16권 제 2호.
- 한국미디어교육학회(2000), 『제4회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2000년 미디어 교육 총결산” -현장 사례 및 연구 발표회 - 자료집』.
- 한국미디어교육학회(2001), 『제5회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2001년 미디어 교육, 어디까지 왔나?” - 현장 사례 및 연구 발표회 - 자료집』.
- Aufderheide, P(1997), Media Literacy, From a Report of the

-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in Kubey ed, *Media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Transaction Publishers.
- Buckingham, D.(1998), Media Education in The UK : Moving
Beyond Protectionis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8 No.1.
- Christ, W.(2002), Media Literacy: Moving from the Margins?,
Journal of Broadcasting & Media, pp.321-327.
- Crist, W & Potter, W.(1998), Media Literacy, Midea Education,
and Academy,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8
No.1.
- Higgins, J.(1999), Community Television and Vision of Media
Literacy, Social Action, and Empowerment, *Jo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 Hobbs, R.(1998), The Seven Debates in the Media Literacy
Mov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8 No.1.
- Potter, W.(1998), *Media Literacy*, SAGE Publication.
- Schwarz, G.(2001), Literacy Expand : The Role of Media Literacy
in Teacher Education, *Teacher Education Quarterly*,
vol. 28, pp.111~119.
- Singer, D. & Singer, J.(1998), Developing Critical Viewing
Skills and Media Literacy in Children, *Critical
Viewing Skills and Media Literacy*, ANNALS,
AAPSS, 557, Ma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부록〉

텔레비전 뉴스 교육 계획안

교육 목표

1. 지식 교육

- 1-1. TV 뉴스의 성격, 기능에 대해 안다.
(TV뉴스와 신문기사의 차이점에 대해 아는 것 포함).

- 1-2. TV 뉴스의 제작 방식을 안다

2. 이해 교육

- 2-1. TV 뉴스를 비교하여 내용의 서술 차이를 알고 TV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2. TV뉴스와 관련한 비판적 태도를 기른다.

3. 표현 교육

- 3-1.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직접 뉴스를 제작·평가할 수 있다.

- 3-2. TV뉴스와 관련한 비판적 태도를 기른다.

교육 내용 체계

교육 내용 범주	교육 내용
뉴스의 본질	· 뉴스의 목적 · 뉴스의 기능 · 뉴스의 특성
뉴스의 수용과 제작	· 뉴스 텍스트 읽기 · 뉴스 제작하기 · 뉴스 평가해 보기
뉴스에 대한 태도	· 뉴스 수용에 대한 태도 · 뉴스 제작에 대한 태도
뉴스와 언어 문화	· 뉴스의 언어 표현상의 특성 · 뉴스에 사용된 언어의 국어 생활적 의의

교수-학습 활동

1차시 : TV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① 뉴스의 구성

- 뉴스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 앵커(남녀)와 기자의 역할, 크로마키, 자막, 카메라 앵글 등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 뉴스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언어 기호들 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 언어 등의 특성과 상호 작용 및 구성 원리를 안다.

② 상업적 가치 : 뉴스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뉴스 역시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 때문에 상품적 가치가 높은 뉴스를 추구하게 되어 점차 단편적인 뉴스만을 취급하게 되는 것에 대해 살펴본다.

③ TV 뉴스와 신문 기사의 비교

- 기술적인 특성 : 시간의 문제, 시각적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본다. (예 : 선택성의 문제: 방송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뉴스를 취사선택할 수 없어, 뉴스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건너 뛸 수 없다. 반면 신문기사는 구독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으며,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를 먼저 읽을 수 있다.)
- 뉴스의 심도 : 방송뉴스와 신문기사 간에는 보도의 심도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기타

2차시 : TV뉴스 텍스트 비판적 읽기 (I)

- ① 현실구성주의(constructivism) : TV뉴스가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② 교육자료(예 : 방송사별 TV뉴스)를 대상으로 방송사별 뉴스구성표를 작성해 봄으로써, 전반적인 특징 및 방송사별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
- ③ 뉴스의 재현 : 동일한 뉴스 아이템이 방송사별로 어떻게 보도되는지를 알아본다(과장된 표현, 부적절한 용어, 인용/인터뷰 대상의

특성 등).

3차시 : TV뉴스 텍스트 비판적 읽기 (II)

- ① 이데올로기 : TV뉴스에는 어떠한 가치나 신념이 반영되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 ② 제작결과물에 내재된 제작자의 사회·문화적 가정과 관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유도한다.
- ③ 토론 및 감상문 작성 : 비판적 읽기에 대한 집단 토론 후에 개인별로 간단한 감상문 작성

4차시 : TV뉴스 스토리보드 제작 및 평가

- 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직접 뉴스를 제작해 본다(주제 정하기, 대본 만들기, 장면 나누기, 콘티 작성하기, [실제 제작] 등). 또한 제작 진행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차후 과정상의 소감을 발표해보기로 한다.
- ② 조별 제작한 뉴스에 대한 개인별 평가(감상문)와 집단적 평가(교사와 학생간의 토론)를 함으로써, 실제 뉴스제작과정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교육 자료

주시청시간대의 뉴스 프로그램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등)

교육효과

1. 비판적 이해 : TV 뉴스 언어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능동적 표현 : TV 뉴스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뉴스를 제작 및 평가할 수 있다.

〈초록〉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수용

- 미디어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정 자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것으로서 수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미디어를 해독, 평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것과 동시에, 더 나아가 미디어를 제작 생산하고 미디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의 내용을 크게 지식, 수용과 제작, 태도, 문화 네 부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미디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 미디어에 대한 앎
-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과 제작·평가 능력
- 미디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 미디어 문화를 즐기고 창조하는 능력

미디어가 인간의 의사소통 활동이며, 고유의 언어 사용 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관련성을 찾고 미디어 교육을 국어교육에서 수용하고 있다. 또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국어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관련성을 찾기도 한다. '또한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선진 외국의 자국어 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교육 분야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도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조류를 받아들여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현대인의 언어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를 교육 내

용으로 선정하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중에서 텔레비전 뉴스, 신문에서는 보도 기사와 사설 및 칼럼을 교육했다. 먼저 학생들의 매체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주 동안 4시간의 수업을 실시한 후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사후 설문지 결과 분석만으로는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의 대한 반응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미디어 교육 수업을 받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미디어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도움정도, 효과정도, 향후 교육 참석의도, 향후 교육 방식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식적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를 수용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존 교과에 포함시켜 미디어를 교육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교육적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중심 담당 교과는 국어과가 적당하다.

【핵심어】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Abstract〉

Media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Focused on cases of media education -

Kim, Jeong-ja

The fundamental objective media education is to make students develop media literacy. A media literate person can decode, evaluate, analyze, and produce both print and electronic media. Furthermore he can enjoy the culture of media.

The contents for media education are established; they are knowledge about media, comprehending and producing media text, attitude about media, enjoying and producing the culture of media.

During four weeks media education was carried in four schools. Television news, television dramas, newspaper news, editorials were taught according to curriculums which we had devised. To research reactions of students, we made up questions before and post lessons. And we conducted personal interviews with a number of students who had taken lessons. Most of students showed positive answers and attitude about media education.

Media education doesn't be performed in the existing school system yet. Considering the literacy, it is appropriate and efficiency to perform media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media education, media literacy